

《杜工部草堂詩話》 研究

이 치 수*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2. 杜甫 詩의 主要 內容 |
| II. 《杜工部草堂詩話》의 編纂 | 3. 杜甫 詩의 藝術的 特色 |
| III. 《杜工部草堂詩話》의 構成 | 4. 其他 |
| 1. 杜甫 詩의 總論性 評價 | IV.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杜甫는 中國 詩 역사에서 李白과 더불어 中國의 古典詩歌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여러 자료에 의하면 杜甫는 동시대 사람들로부터는 제대로 평가받지를 못했으며, 中唐과 晚唐, 그리고 五代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杜甫의 詩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보다 심도 있고 더욱 활발한 논의는 다음 시기, 즉 宋代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때가 되면 이전 시대와 달리 杜甫 詩의 蒐輯, 整理, 校勘, 編年, 注釋 등의 작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詩의 내용 및 형식, 표현 등 여러 측면에서 杜 詩의 특색과 가치를 새로이 발견하는 論議와 談論이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송대에 들어 中國의 고전문학비평은 ‘詩話’라는 새로운 양식이 등장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본격적이고 깊이 있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는 활동과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杜甫 시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담론들이 이 ‘詩話’ 속에 모은 책이 등장한 것이다. 송대의 ‘詩話’ 중, 어떤 특정 한 시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시인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담론을 ‘詩話’의 형태로 엮어낸 것은 杜甫가 유일하며, 《杜工部草堂詩話》가 바로 이러한 책이다. 《杜工部草堂詩話》는 이렇게 하여 우리들의 주목을 끌게 된다. 이 책은 著者로 알려진 蔡夢弼 한 사람 자기 개인의 생각만을 적은 것이 아니고(극히 소수) 杜甫의 시를 推崇하던 熱氣가 대단하던 시대인 송대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송대의 사람들이 과연 杜甫와 그의 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談論하였는가? 蔡夢弼은 누구의 어떤 견해를 이 책에 신고 있는가? 등등, 이 책을 접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점들에 대해 궁금함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에 이 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이 있게 되고, 이 책과 관련된 昨今の 연구 성과를 보면, 우선 張忠綱은 《杜甫詩話五種校注》(書目文獻出版社, 1994)에서 《杜工部草堂詩話》에 대해 校注를 달았으며(2004년에 增刊本 《杜甫詩話六種校注》(齊魯書社) 출판), 李義康은 世宗朝 刊行本을 저본으로 하여 《杜工部草堂詩話》를 우리말로 옮기고 注를 달았다.(《(세종조 간행본) 杜工部草堂詩話》, 다운샘, 2003). 연구 論文의 경우는 아직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편, 중국은 3편, 臺灣은 1편의 논문이 있다. 李義康의 〈조선 초기 翻刻本 『杜工部草堂詩話』에 관하여〉(《漢文學報》 第7輯, 2002)는 우리나라 世宗 때 密陽에서 《杜工部草堂詩話》가 간행된 내력과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朝鮮朝 杜詩學史에서의 위치를 논하였다. 楊勝寬의 〈讀蔡夢弼《杜工部草堂詩話》 札記(一)〉(《杜甫研究學刊》, 2016年 2期)과 〈讀蔡夢弼《杜工部草堂詩話》 札記(二)〉(《杜甫研究學刊》, 2018年 1期)는 각기 黃庭堅과 高元之가 陶淵明과 杜甫의 教子詩에 대해, 그리고 陳師道와 陳善이 杜甫의 ‘以詩爲文’에 대해 각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등의 몇 가지 개별 사안만을 다루었다. 段晉陽의 〈宋人詩話對杜甫其人其詩的評議〉(閩南師範大學, 碩士論文, 2017)는 《諸家老杜詩評》와 《杜工部草堂詩話》

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아 兩者를 몇 가지 점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林淑貞의 〈蔡夢弼「草堂詩話」所建構的宋人論杜視域及其美感思維〉(陳文華 主編, 《杜甫與唐宋詩學》, 里仁書局, 2003)는 《杜工部草堂詩話》를 비교적 전반적으로 살피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이 두 편의 글은 《杜工部草堂詩話》에 실려 있는 송대의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들의 특색을 일목요연하고 적절하게 두루 소개하는 점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 杜甫의 詩는 宋代의 시인들이 이전의 唐詩와 다른 나름대로 관목할만한 성취를 거두는 창작 방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宋代의 시인과 비평가들이 詩學의 여러 방면에 대해 더욱 새롭고 폭넓고 깊게 성찰하는 이론적인 방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貢獻을 하였다. 그러므로 宋代의 詩와 詩學을 이해하고 杜甫의 詩와 중국 古典詩歌의 발전과의 관계를 잘 살피기 위해서도 宋代의 杜甫論과 그의 詩에 관한 논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杜工部草堂詩話》는 내용에 따라 項目을 나누어 송대의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수록한 책이 아니라 송대의 여러 사람들의 혹은 길고 혹은 짧은 말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따라 각자의 견해를 분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宋代의 杜甫 詩 연구와 학습의 열렬한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여 주목을 끄는 책인 《杜工部草堂詩話》에서 宋代의 사람들이 杜甫와 그의 詩에 대해 어떻게 평가, 談論하면서 이전의 唐代나 五代와 달리 얼마나 다양하고 새로운 견해들이 제시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II. 《杜工部草堂詩話》의 編纂

《杜工部草堂詩話》의 저자는 蔡夢弼이라 알려져 있다. 그는 南宋 사람으로, 字가 傅卿이며, 建安(지금의 福建省 建甌) 사람이다. 그의 生卒年은 未詳이며, 行적도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단지 그가 지은 〈杜工部草堂詩箋跋〉에 의하면 寧宗 嘉泰 4년(1204)에 《杜工部草堂詩箋》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南宋의 杜甫詩集 중 중요 판본의 하나이며, 編年, 箋釋 등의 방면에서 杜詩學의 기초를 닦는 데에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¹⁾ 宋代에는 杜甫의 詩에 대해 문헌 정리와 注釋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千家注杜’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蔡夢弼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杜工部草堂詩箋》은 杜甫 詩를 창작 연대에 따라 배열하면서 이전 사람들이 杜甫와 그의 詩에 대해 실시한 考證과 평론을 대량으로 인용함으로써 많은 진귀한 문헌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杜工部草堂詩話》는 원래 《杜工部草堂詩箋》의 부록으로 간행되었으니, 蔡夢弼이 杜甫 詩의 주석 작업을 하면서, 杜甫의 詩에 관한 諸家の 논평을 모으는 작업을 한 것이다.

본 논문은 宋代의 蔡夢弼의 《杜工部草堂詩話》의 특색을 살피기 위해 張忠綱의 《杜甫詩話六種校注》(齊魯書社, 2004)에 실려 있는 《杜工部草堂詩話》를 주 텍스트로 삼았는데, 이 책은 文淵閣 《四庫全書》本을 底本으로 하면서 北京大學 圖書館 所藏 清抄本 《杜工部草堂詩話》, 山陰 杜氏 道光 壬午 刊本을 비롯하여 丁福保의 《歷代詩話續編》本 등의 여러 책을 참고하였다. 張忠綱의 《杜甫詩話六種校注》本 《杜工部草堂詩話》에는 총 115條가 실려 있으며, 마지막의 글 ‘杜氏譜系’를 제외한 나머지는 杜甫나 그의 詩와 관련된 논평이다. 蔡夢弼의 《杜工部草堂詩話》에 인용된 논평의 인명과 출처를 引用回數의 多寡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引用人數	引用人名	出 處	引用回數
1	葛立方	韻語陽秋	30
2	胡仔	叢話(苕溪漁隱叢話)	7
3	黃徹	黃常明詩話(碧溪詩話)	5

1) 陳尚君·王欣悅, 〈蔡夢弼《杜工部草堂詩箋》版本流傳考〉(《古籍整理研究學刊》2011年 5期): “蔡夢弼《杜工部草堂詩箋》(下文簡稱“蔡箋”或“草堂詩箋”)爲南宋杜集的重要版本之一, 並在編年、箋釋等方面, 爲奠定杜詩學基礎起到了舉足輕重的作用.”

引用人數	引用人名	出 處		引用回數
4	王得臣	塵史	4	5
		詩話	1	
5	高元之	茶甘錄		5
6	范溫	詩眼(潛溪詩眼)		5
7	蘇軾	蘇子瞻詩話		4
8	黃庭堅	詩話		4
9	馬永卿	懶真子錄		4
10	葉夢得	詩話(石林詩話)		3
11	洪邁	容齋隨筆		3
12	魏泰	隱居詩話(臨漢隱居詩話)		3
13	呂本中	呂氏童蒙訓	2	3
			1	
14	師古	詩話		3
15	陳善	捫虱新話		3
16	嚴有翼	藝苑雌黃		2
17	秦觀	進論	1	2
		詩話	1	
18	陳師道	詩話		2
19	胡舜陟	胡氏語錄(三山老人語錄)		2
20	張九成	心傳錄		2
21	龔鼎臣	東原錄		1
22	龐元英	文昌雜錄		1
23	司馬光	迂叟詩話		1
24	蘇轍			1
25	沈括			1
26	楊湜	古今詞話		1
27	王觀國	學林新編		1
28	王安石			1
29	俞成	螢雪叢說		1
30	鄭景韋	離經		1

引用人數	引用人名	出 處	引用回数
31	程大昌	演繁露	1
32	趙明誠	金石錄	1
33	陳正敏	遁齋閑覽	1
34	蔡居厚	蔡寬夫詩話	1
35	崔條	西清詩話	1
36	崔鷗		1
37	惠洪	冷齋夜話	1
38	黃朝英	湘素雜記	1
39	佚名	漫叟詩話	1
40	佚名	詩辭事略	1
41	佚名	古今詩話	1
42	佚名	庚溪詩說	1

葛立方의 《韻語陽秋》가 30회로 단연 제일 많이 인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胡仔의 《苕溪漁隱叢話》가 7회, 黃徹의 《黃常明詩話》(《碧溪詩話》), 王得臣의 《塵史》와 《詩話》, 高元之의 《茶甘錄》, 范溫의 《潛溪詩眼》이 5회, 그리고 蘇軾, 黃庭堅, 馬永卿의 말이 4회 인용되었다. 蔡夢弼의 견해도 일곱 군데에서 보이는데 ‘杜氏譜系’를 제외한 나머지 6회는 독자적으로 별도의 항목을 따로 마련하여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논평을 소개하는 항목 뒷부분에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杜工部草堂詩話》에 거론된 사람들은 문학사적으로 이름 있는 시인과 문학비평사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저자가 확실치 않은 사람도 있다. 이 책은 蔡夢弼을 포함하여 총 43명이라는 비교적 많은宋代 사람들의 논평을 한 자리에 모았다. 다만宋代의 대표적인詩話 중의 하나로 꼽히는 張戒의 《歲寒堂詩話》나 嚴羽의 《滄浪詩話》를 비롯하여 陸游 등의 杜甫나 杜甫詩에 대한 관련 논평은 보이지 않는다. 蔡夢弼은宋代의 여러 사람들이 杜甫나 杜甫詩에 대해 논하거나 언급한 말을

모아서 책 이름도 《杜工部草堂詩話》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인용된 책들은 상당수가 魏泰의 《臨漢隱居詩話》나 葛立方의 《韻語陽秋》 등과 같은 詩話類이며, 전적으로 詩만을 논한 것은 아닌 책도 있으나 숫자는 많지 않다.(이를테면 張九成的 《心傳錄》, 趙明誠의 《金石錄》 등) 宋代에 詩話라는 비평 양식이 새로 등장하면서 많은 詩話書가 나왔지만, 杜甫나 杜甫 詩에 대해 논하거나 언급한 말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편찬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는 것은 方道深의 《續集諸家老杜詩評》과 蔡夢弼의 《杜工部草堂詩話》 뿐이며, 후세의 流傳이나 책 내용이 자세하고 풍부한 점에서는 前者가 後者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이 있다.²⁾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杜工部草堂詩話》가 나왔다는 것은 이 책의 의의와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만드는 점이다.

Ⅲ. 蔡夢弼 《杜工部草堂詩話》의 構成

《杜工部草堂詩話》는 총 115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책의 구성은 논평자들을 시대순으로 배열한 것도 아니고, 또는 여러 사람들의 논평을 다시 細部 분류하여 정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실려 있는 내용을 보면 우선 杜甫나 杜甫 詩에 대한 總體的인 평가, 또는 대표적인 總論性的 평가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관련 자료들을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杜工部草堂詩話》의 내용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杜甫 詩의 總體的, 總論性的 평가와 특색, 杜甫 詩의 內容 특색, 杜甫 詩의 藝術的 표현 특색 등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그중에서도 비교적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杜工部草堂詩話》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四庫全書總目》, 藝文印書館, 1979, 4100쪽. 〈草堂詩話提要〉: “宋蔡夢弼撰. ……陳振孫《書錄解題》載莆田方道深《續集諸家老杜詩評》一卷, ……然道深書瑣碎冗雜, 無可采錄, 不及此書之詳瞻.”

1. 杜甫 詩의 總論性 評價

蔡夢弼은 《杜工部草堂詩話》의 첫 번째 항목의 글에서 秦觀의 말을 인용하면서 杜甫를 孔子에 비기고 그의 詩가 중국 고전시를 集大成하였음을 높이 칭송하였다. 일찍이 中唐의 元稹 또한 《唐故工部員外郎杜君墓系銘》에서 杜甫가 古今의 體勢를 다 갖추고 여러 시인들의 독특한 성취를 겸비하였다고 평한 바 있는데³⁾, 秦觀은 ‘集大成’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여 杜甫의 詩를 높이 평하여 “杜子美는 詩에 있어서, 진실로 여러 사람들의 장점을 섭취하여 時宜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였는데” “諸家の 장점을 모으지 않았다면 杜子美 또한 홀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면서, 孔子를 聖人 가운데 가장 時宜에 맞게 행하신 분, 集大成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杜甫 또한 詩를 集大成한 것으로 보았다.⁴⁾ 陳正敏의 《遜齋閑覽》 또한 杜甫의 詩가 폭이 넓고 다양하고 풍부함을 들면서 元稹의 杜甫 評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⁵⁾ 그리고 范溫은 《潛溪詩眼》에서 杜甫의 律詩는 法度の 配置를 전적으로 沈佺期에게서 배운 뒤 더욱 넓혀 集大成하였다고 평하면서⁶⁾ 作法的 측면에서 杜甫 詩의 ‘集大成’을 지적하였다.

‘集大成’이란 평가를 이어 蔡夢弼은 두 번째로 ‘詩史’에 대한 평어를 실었다. 王得臣은 杜甫의 시가 내용이 천태만상 다양하고, 과거와 현재를 두루 잘 알며(茹古涵今), 글자를 사용함이 더욱 공교롭고, 典故에 뛰어나다고 평한 다음, 이어서 《義鵲行》의 詩句를 例로 들면서 “세상 사람들이 ‘詩史’라고 부르는데 진실로 그러하다.”고 평했다.⁷⁾ 그리고 魏泰는 《臨漢隱

3) 吳中勝, 《杜甫批評史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17쪽. 盡得古今之體勢, 而兼人人之所獨專矣.

4) 張忠綱, 《杜甫詩話六種校注》, 齊魯書社, 2004, 99-100쪽. 杜子美之於詩, 實積衆流之長, 適當其時而已. ……然不集諸家之長, 子美亦不能獨至於斯也, ……孔子, 聖之時者也. 孔子之所謂集大成.’ 嗚呼! 子美亦集詩之大成者歟?”

5) 같은 책, 106-107쪽. 元稹謂兼人人之所獨專, 斯言信矣!

6) 같은 책, 102쪽. 杜甫律詩布置法度, 全學沈佺期, 更推廣集大成耳.

居詩話》에서 杜甫의 〈八哀詩〉 중 李光弼의 죽음을 애도하는 詩句를 例로 들면서 “前人들이 杜甫를 ‘詩史’라고 말한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니, 단지 옛 자취를 서술하고 옛적 사실을 주워 모아놓았을 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⁸⁾

杜甫의 詩를 推仰하는 宋代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더 강해져 갔는데, 陳善은 《捫虱新話》에서 평하길, 杜甫 詩는 詩에서 六經과 같은 존재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는 諸子の 部類에 속한다고 보았다. 杜詩에는 깊은 이치를 담은 高妙한 말이 있다고 하면서 “王이나 諸侯, 땅강아지나 개미, 모두 죽어 언덕에 묻히게 되네. 원컨대 으뜸가는 도리를 듣고 마음의 처음 상태로 돌아가고 싶네.(王侯與螻蟻, 同盡隨丘墟. 願聞第一義, 回向心地初.)”(〈謁文公上方〉) 구절을 例로 들면서 ‘마음의 처음 상태(心地初)’라는 말은 바로 《莊子·應帝王》에서 이른바 “담담함 속에서 마음을 노닐고, 고요함 속에 氣를 합치시킨다.”는 뜻이라고 풀이하였다.⁹⁾ 드높은 경지를 지향하는 뜻을 나타내는 杜詩를 經典과 같다고 아주 높이 보았다.

이외에도 宋代의 사람들은 杜甫 詩에 대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생각해 보았다. 이를테면 杜甫는 詩 뿐만 아니라 散文도 지었는데, 杜詩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지만 그의 散文에 대해서는 宋代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하는 점도 궁금함을 불러일으키는데 이에 대해 《杜工部草堂詩話》에서는 두 사람의 견해를 소개하였다. 우선, 秦觀은 杜甫의 詩와 文을 평하면서 “杜子美는 詩에 뛰어나지만 韻이 없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을 지경이다.”라고 하였다.¹⁰⁾ 蔡夢弼은 이에 대해 〈課伐木詩序〉를 例로 들었다. 陳師道는 또 이와 관련하여 말하기를, 詩와 文은 각기 다른 문체인데, 杜甫는 詩로 文을 지었기 때문에 工巧롭지 못하다고 하였

7) 같은 책, 100쪽. 世號‘詩史’, 信哉.

8) 같은 책, 117쪽. 前人謂杜甫之爲‘詩史’, 蓋爲是也. 非但序陳跡、撫故實而已.

9) 같은 책, 129쪽. 老杜詩當是詩中六經, 他人詩乃諸子之流也. 如云: “王侯與螻蟻, 同盡隨丘墟. 願聞第一義, 回向心地初.” 可謂深入理窟. 晉宋以來, 詩人無此句也. ‘心地初’乃《莊子》所謂“游心於淡, 合氣於漠”之義也.

10) 같은 책, 106쪽. 杜子美長於歌詩, 而無韻者幾不可讀.

다.¹¹⁾

宋代의 사람들은 또 杜甫를 그 이전의 뛰어난 시인과 비교하며 논의를 해보았다. 우선, 杜甫와 李白, 두 사람 중, 누구의 詩가 더 뛰어난가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인데, 鄭厚는 《離經》에서 李白을 시인 중에서 龍으로, 杜甫를 麒麟으로 비유한 다음, ‘두 詩豪가 성취한 바는 대체로 優劣을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¹²⁾ 이에 반해 葛立方은 《韻語陽秋》에서 杜甫와 李白이 詩로 이름을 나란히 날리지만, ‘杜甫의 詩는 唐 以來로 第一人者이니, 어찌 李白이 바라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¹³⁾ 이것을 보면 李白과 杜甫의 詩의 평가와 관련하여 宋代에 이미 입장을 달리하는 두 견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宋代의 杜甫論者들은 또 陶淵明과 杜甫라는 중국 詩史上的 두 위대한 시인에 대해서도 주목하여 이들을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고 논의해 보았다. 張九成은 《心傳錄》에서 陶淵明의 〈歸去來辭〉와 杜甫의 〈江亭〉 詩를 들면서, 두 사람의 詩文은 優劣을 논하기 어렵다고 보았다.¹⁴⁾ 高元之은 《茶甘錄》에서 陶淵明과 杜甫 모두 자식에 대한 생각을 詩에 나타내었는데, 杜甫가 陶淵明보다 자식들에게 더 정을 쏟은 것 같다고 말했다.¹⁵⁾ 그리고 葛立方은 《韻語陽秋》에서 陶淵明과 杜甫는 모두 한 시대의 偉人들인데도 매번 농부들이 함께 마시자고 하면 거절함이 없이 이들이 즐겁게 술을 마시고 돌아가게 하였다고 높이 평했다.¹⁶⁾

葛立方은 《韻語陽秋》에서 杜甫가 당시에 이미 시인들에게 欽慕를 받

11) 같은 책, 110쪽. 詩文各有體, 韓以文爲詩, 杜以詩爲文, 故不工耳.

12) 같은 책, 146쪽. 二豪所得, 殆不可以優劣論也.

13) 같은 책, 150쪽. 杜甫詩, 唐朝以來一人而已, 豈白所能望耶!

14) 같은 책, 139쪽. 若淵明與子美相易其語, 則識者往往以謂子美不及淵明矣. ……則與物初無間斷, 氣更混淪, 難輕議也.

15) 같은 책, 161쪽. 然子美於諸子, 亦未爲忘情者. ……觀此數詩, 於諸子鍾情尤甚於淵明矣.

16) 같은 책, 128쪽. 陶淵明杜子美皆一世偉人也, 每田父索飲, 必使之畢其歡盡其情而後去.

았으며, 宋祁가 《新唐書·杜甫傳》에서 杜甫가 後人들에게 恩澤을 남겨주었다(殘膏餘馥, 沾丐後人)라고 한 論贊은 마땅하다고 보면서, 元稹이 ‘시인이 있는 이래로 杜子美와 같은 사람은 있지 아니 하였다.’(詩人已來, 未有如子美者也.)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後人の 杜甫 稱誦을 말했다.¹⁷⁾

2. 杜甫 詩의 主要 內容

宋代의 評者들은 杜甫 詩의 內容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杜甫 시에서 君王과 百姓을 걱정하는 부분에 대단히 주목했다. 蘇軾은 古今의 詩人이 많으나 杜子美를 홀로 으뜸으로 치는데, 그것은 그가 타향을 떠돌며 배고프고 추웠으며 죽을 때까지 등용되지 않았지만 밥 한 끼 먹더라도 일찍이 임금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이 어찌 아니겠는가? 라고 말했다.¹⁸⁾ 黃常明 역시 자신은 杜甫 詩 중 전쟁을 멈추고자 바라는 내용을 좋아한다고 밝히면서, 杜甫의 시름과 탄식, 근심과 슬픔은 대체로 임금과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라고 평했다.¹⁹⁾ 그는 또 杜甫의 〈觀打魚〉詩를 例로 들면서 신하가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어들이고 가혹한 법으로 착취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히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小人이 잔꾀를 부리고 시세에 편승하여 교묘하게 벼슬하면서 자주 승진하고 백성을 해치며 함부로 날뛰는 것을 비판하였는데, 이것은 六義의 比·興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²⁰⁾

한편 葛立方은 杜甫가 임금을 사랑하여 간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葛立方이 보기에 杜甫의 임금 사랑은 단순히 순종적이고 맹목적인 것은 아니며 杜甫가 임금의 顏色에 개의치

17) 같은 책, 145쪽.

18) 같은 책, 101쪽. 古今詩人衆矣, 而子美獨爲首者, 豈非以其流落飢寒, 終身不用, 而一飯未嘗忘君也歟?

19) 같은 책, 135쪽. 其愁歎憂戚, 蓋以人主生靈爲念.

20) 같은 책, 134쪽. 此與六義比興何異?

않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며 반드시 자기 몸을 위해 꺾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면서 杜甫의 임금 사랑의 성격을 나름대로 분석하였다.²¹⁾ 葛立方은 또 杜甫가 〈北征〉에서 말하길, 唐 玄宗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 楊貴妃를 죽인 것은 夏 왕조와 殷 왕조가 褒姒와 妲己로 인해 멸망한 것과 같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임금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며, 杜甫가 玄宗의 잘못을 그릇되게 꾸짖었다고 평하는 것은 공정한 논의가 아니라고 평했다.²²⁾

黃徹은 《碧溪詩話》에서 杜甫를 孟子와 같다고 여겼는데, 그것은 백성을 편안케 하려는 孟子의 마음을 杜甫도 가지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²³⁾

송대의 평자들은 또 杜甫가 어지러운 시대를 살면서 보고 느낀 바를 시에 나타난 특색을 주목하였다. 葛立方은 《韻語陽秋》에서 말하길, 杜甫는 전쟁으로 혼란한 가운데서 살아가며 시절을 한탄하고 사물을 마주하면 슬픔이 따라서 생겨나게 되며 詩를 지을 때 ‘自’자를 많이 사용하였다고 평했다.²⁴⁾ 胡舜陟은 《胡氏語錄》에서 杜甫의 〈同諸公登慈恩寺塔〉시는 天寶 연간의 時事를 나무랐다고 평하면서, 임금은 道를 잃고 賢人과 不肖한 자들이 뒤섞여 있어 清濁이 나누어지지 않았으며, 賢人과 君子로 朝廷을 떠난 사람들이 많고 오직 祿俸과 官位를 탐내고 흠치는 小人들만이 조정에 있는 상황을 비판하였다고 분석했다.²⁵⁾

范溫의 《潛溪詩眼》에 의하면, 宋代에는 杜甫의 〈北征〉詩와 韓愈의 〈南山〉詩의 優劣에 대해 사람마다 評이 달랐는데, 孫覺은 〈北征〉이 〈南山〉보다 낫다고 평한 반면, 王安國은 〈南山〉이 〈北征〉보다 낫다고 하였

21) 같은 책, 162쪽. 蓋愛君欲諫之心切, 則通夕爲之不寐, 想其犯顏逆耳, 必不爲身謀也.

22) 같은 책, 165쪽. 老杜此語, 出於愛君, 而曲文其過, 非至公之論也.

23) 같은 책, 172쪽. 《孟子》七篇, ……蓋以安民也, ……愚謂老杜似孟子, 蓋原其心也.

24) 같은 책, 144쪽. 老杜寄身於兵戈騷屑之中, 感時對物, 則悲傷系之, 如‘感時花濺淚’是也, 故作詩多用一‘自’字.

25) 같은 책, 114쪽. 子美〈慈恩寺塔〉詩, 乃譏天寶時事也, ……則人君失道矣, 賢不肖混淆, 而清濁不分, ……賢人君子多去朝廷, ……惟小人貪竊祿位者在朝.

다. 이에 대해, 당시 아직 어린 나이의 黃庭堅은 말하길, 만약 工巧로움을 가지고 논평한다면 〈北征〉은 〈南山〉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 시대의 일을 서술하면서 《詩經》의 〈國風〉이나 〈雅〉와 〈頌〉을 계승한 점에서는 杜甫의 詩가 韓愈보다 뛰어나다고 하였는데²⁶⁾, 이로써 두 사람에 관한 논쟁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였다.

龐元英은 《文昌雜錄》에서 杜甫의 詩에 唐代 때 중요시하던 歲時의 節物들이 기록되어있는 事例들을 하나하나 들면서 귀중한 자료로 여겼다.²⁷⁾

송대의 杜甫 시 評者들은 또 杜甫가 시에서 나타낸 個人 生活과 感情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葛立方은 《韻語陽秋》에서 말하길, 杜甫는 전쟁으로 혼란한 때를 살면서 길이 험난한 秦隴에서 뿔나무를 등에 지고 토란을 주웠는데 식량이 넉넉하지 못해 지극히 곤궁하게 생활했으며, 蜀에 이르러 비로소 草堂이란 거처를 갖게 되었고, 이후 다른 곳에 가더라도 하루도 草堂을 잊은 적이 없다고 분석하였다.²⁸⁾ 葛立方은 또 杜甫가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며 느끼는 심정을 詩에서 읊은 예를 들었다.²⁹⁾ 특히 杜甫가 兵亂으로 혼란스런 때를 당하여 아내와 각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달 밝은 밤에 아내를 그리워하는 생각을 자주 詩에 드러냈다고 말하며³⁰⁾ 〈月夜〉, 〈一百五日夜對月〉, 〈江月〉 등의 詩를 들었다. 葛立方은 또 杜甫가 亂離를 겪으며 衣食이 부족하여 천하를 떠돌아다니면서 남에게 도움을 바라지 않을 수 없었음을 관련 詩를 들어 논했다.³¹⁾ 《庚溪詩說》은 杜甫의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詩는 聲律을 통하여 杜甫가 자신의 마음의 자취를 나타낸 한 편의 작품이라고 평했는데³²⁾, 杜甫가 험난한 삶의 괴로움

26) 같은 책, 119쪽. 若論工巧, 則〈北征〉不及〈南山〉, 若書一代之事, 以與〈國風〉、〈雅〉、〈頌〉相爲表裏, 則〈北征〉不可無, 而〈南山〉雖不作未害也.

27) 같은 책, 105쪽. 唐歲時節物, ……是皆記當時之所重也.

28) 같은 책, 157쪽. 老杜當干戈騷屑之際, 問關秦隴, 負薪拾稻, 餽糲不給, 困躓極矣. 自至蜀依裴冕, 始有草堂之居. ……其心則未嘗一日不在草堂也.

29) 같은 책, 160쪽. 〈北征〉, 〈進艇〉, 〈江村〉 詩를 例로 들었다.

30) 같은 책, 162쪽. 至於明月之夕, 則遐想長思, 屢形詩什.

31) 같은 책, 165-166쪽.

을 상세히 서술하면서 천하를 근심하고 자신의 得失을 걱정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였다고 보았다.

이상의 내용 외에도 《杜工部草堂詩話》에는 杜甫 詩의 字句 해석과 관련된 논의도 여럿 보이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만 들기로 한다.

程大昌은 《演繁露》에서 杜甫의 〈七歌〉詩의 “竹林爲我啼清晝(竹林을 나를 위해 대낮에 우는구나)” 중의 ‘竹林’에 대해 蔡條가 새 이름으로 여기는 것은 穿鑿이라고 보았다.³³⁾

杜甫의 〈戲作俳諧體遣悶〉詩의 “家家養烏鬼(집집마다 烏鬼를 奉養하네)” 중의 ‘烏鬼’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 ‘새까만 돼지’, ‘巴蜀에서 섬기는 귀신의 이름’, ‘鷓鴣새’, ‘까마귀 신’ 등 여러 견해가 있는데, 蔡夢弼은 마지막 說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³⁴⁾

師古는 《詩話》에서 말하길, 杜甫의 〈江村〉詩 중의 ‘老妻’와 ‘稚子’에 대해 或者는 楊貴妃와 安祿山을 比喻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여겼다.³⁵⁾

이상에서 보듯이 宋代 사람들은 杜甫 詩의 주요 내용으로, 杜甫가 임금과 백성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詩에 담았으며, 가혹한 관리와 소인배들을 비판하였으며, 백성을 편안케 하려고 하였던 孟子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며, 天寶 연간의 時事를 비판하였으며, 戰亂 속에서의 생활과 가

32) 같은 책, 170쪽. 觀〈赴奉先詠懷五百言〉, 乃聲律中老杜心跡論一篇也.

33) 같은 책, 129쪽. 老杜〈七歌〉: “竹林爲我啼清晝”, 蔡條以‘竹林’爲禽名, 恐穿鑿也. 〈乾元中寓居同谷縣作歌七首〉의 제4수. 清代의 仇兆鰲의 《杜詩詳註》에는 ‘林猿’으로 되어 있고, ‘一作竹林’이라 하였으며, 蔡條의 말은 穿鑿으로 믿을 수 없다고 평했다. 文史哲出版社, 1976, 456쪽.

34) 같은 책, 169쪽. 沈存中《筆談》以‘烏鬼’爲‘烏豬’, ……《蔡寬夫詩話》以‘烏鬼’爲巴俗所事神名也. 《冷齋夜話》謂巴俗多事烏蠻鬼, ……《細素雜記》以鷓鴣爲烏鬼, 謂養之以捕魚也. 然《詩辭事畧》又謂楚峽之間事烏爲神, 所謂神鴨也. ……夢弼謂當以此《事畧》之言爲是也. 仇兆鰲는 《杜詩詳註》에서 《蔡寬夫詩話》 쪽을 따랐다. 1032쪽.

35) 같은 책, 121쪽. 或說老妻以比楊貴妃, 稚子以比安祿山, ……甫肯以己妻子而托意於淫婦人與逆臣哉! 理必不然.

죽 등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었다고 보았으며, 詩句의 올바른 뜻풀이와 관련하여서도 언급하였다.

3. 杜甫 詩의 藝術의 特色

宋代에 이르면 앞의 어느 시기보다도 詩法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면을 폭 넓고 세밀하게 따졌다. 따라서 杜甫 詩에 대해서도 宋代 사람들은 杜甫 詩의 내용뿐만 아니라 杜甫 詩의 詩法 淵源, 詩法, 그리고 表現 特色, 風格 등, 여러 방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였다.

(1) 詩法 淵源

杜甫 詩의 詩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대해 黃庭堅이 말하길, “杜甫의 詩法은 杜審言에서 나왔고, 句法은 庾信에게서 나왔는데, 다만 그들을 뛰어넘었을 뿐이다.”라고 하였으며, 胡仔 역시 杜甫의 詩法은 바로 家學을 전수 받은 것임을 지적하였다.³⁶⁾ 王得臣은 좀 더 구체적으로, 杜甫가 杜審言의 詩語와 같거나 유사한 예를 들면서, ‘비록 杜審言의 뜻을 답습하지 않았지만, 말의 脈은 대개 家法이 있다.’³⁷⁾고 평했다.

(2) 用字

宋代의 사람들은 杜甫가 ‘詩語가 사람을 놀라게 하지 못하면 詩句 다듬기를 죽어도 쉬지 않는다(語不驚人死不休)’라는 창작태도로 作詩에 임하여 글자를 운용하고 단련하면서 나타난 여러 특색에 주목하였다.

王安石은 詩를 지을 때는 한 글자나 두 글자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杜甫의 “無人覺來往(오고 가는 것을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네)” 중의 ‘覺’자 사용이 대단히 좋다고 평했다.³⁸⁾

36) 같은 책, 101쪽. 後山陳無己《詩話》曰: “黃魯直言: 杜子美之詩法出審言, 句法出庾信, 但過之耳. 苕溪胡元任曰: ……則其詩法乃家學所傳耳.”

37) 같은 책, 104쪽. 雖不襲取其意, 而語脈蓋有家法矣.

葛立方 역시 《韻語陽秋》에서 詩를 짓는 것은 글자를 어떻게 단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杜甫의 “紅入桃花嫩, 青歸柳葉新.(붉은 빛이 복사꽃에 스며드니 더 여리고, 푸른색이 버들잎에 돌아오니 더욱 새롭네.)” 句에서 만약 ‘入’과 ‘歸’라는 두 글자가 아니면 어린애의 詩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는 물음을 던졌다.³⁹⁾

葉夢得은 詩를 짓는 사람들은 한 글자를 工巧롭게 하고자 하는데, 오직 杜甫만이 변화가 많고 기이함을 끝없이 낸다는 점을 높이 평했다.⁴⁰⁾ 呂本中은 《呂氏童蒙訓》에서 말하길, 詩나 문장에는 全篇에 생기를 부여하는 뛰어난 詩句, 정련되고 함축적인 글귀, 즉 警策이 있어야 되는데, 杜甫의 詩가 이렇지 않은 것이 없으며, 이것은 杜甫 본인이 말한 바 ‘語不驚人死不休’(《江上值水如海勢聊短述》)라는 말의 실천이라고 보았다.⁴¹⁾ 呂本中은 또 詩句 중에는 가장 정련되고 힘을 기울이는 글자, 즉 ‘響字’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杜甫의 “身輕一鳥過(몸이 가벼워 한 마리 새가 지나가는 듯하네)” 중의 ‘過’자와 “飛燕受風斜(날아가는 제비는 바람 받고 비스듬하네)” 중의 ‘受’자를 響字의 例로 들었다.⁴²⁾ 葉夢得은 또 《石林詩話》에서 말하길, 詩語는 天然의 工巧로움이 절로 있되 그것을 아로새긴 흔적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例로 杜甫의 “細雨魚兒出, 微風燕子斜.(가랑비에 새끼 물고기 물 위로 나오고, 산들바람에 제비 새끼 비스듬히 난다.)”와 “穿花蛺蝶深深見, 點水蜻蜓款款飛.(꽃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나비는 깊고 깊은 곳에 보이고, 물을 찍는 잠자리는 느릿느릿 날아다닌다.)”를 들었다.⁴³⁾ 呂本中은 杜甫의 詩에는 다듬지 아니한 자연스런 말로

38) 같은 책, 145쪽. 老杜云: “無人覺來往。”下得覺字大好.

39) 같은 책, 155쪽. 作詩在於鍊字, ……(酬李都督早春) 詩云: “紅入桃花嫩, 青歸柳葉新, 若非入與歸二字, 則與兒童之詩何異?”

40) 같은 책, 109쪽. 詩人以一字爲工, 世固知之, 惟老杜變化開闢, 出奇無窮, 殆不可以形迹捕.

41) 같은 책, 113쪽. 子美詩云: “語不驚人死不休.” 所謂驚人語, 即警策也.

42) 같은 책, 137쪽. 詩每句中須有一兩字響, 響字乃妙指. 如子美“身輕一鳥過”, “飛燕受風斜”, 過字受字皆一句響字也.

서 지극한 경지에 도달한 것이 있고, 다듬은 말로서 지극한 경지에 도달한 것이 있다고 평했다.⁴⁴⁾

俞成은 杜甫 詩가 남보다 크게 뛰어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단지 用字가平易하고 俗된 듯 하지만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적절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한 데에 있다고 평했다.⁴⁵⁾ 黃徹은 《黃常明詩話》에서 말하길, 杜甫는 물건을 헤아릴 때 ‘箇’자를 사용하고, 밥 먹는 것을 ‘喫’이라고 하여 매우 비속함에 가까우나, 杜甫는 자주 이 글자들을 사용하였는데, 이 글자들은 대체로 작품 속에서 기이하고 특이하며 작품 중의 사물을 돋보이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평했다.⁴⁶⁾ 葛立方은 杜甫의 詩 중 “秋天不肯明(가을 하늘은 밝으려 하지 않는다)”과 “江平不肯流(강은 평평하여 흐르려 하지 않는다)”는 ‘不肯’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하여 깊은 뜻을含蓄적으로 나타내어 매우 훌륭하다고 평했다.⁴⁷⁾

宋代의 사람들은 杜甫가 鍊字에 뛰어나 平易한 가운데 奇異함을 나타내되 天然의 工巧로움이 있으며 俚俗을 피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했다.

(3) 句法

宋代의 사람들은 또 杜甫 詩의 句法上的 특색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저자 미상의 《漫叟詩話》는 詩에 拙朴한 구절이 있어도 뛰어난 작품으로 칠 수 있다고 말하면서 杜甫의 “兩個黃鸝鳴翠柳，一行白鷺上青天.(두 마리 노란 피꼬리는 푸른 버드나무에서 울고, 한 줄의 백로는 푸른 하늘

43) 같은 책, 114쪽. 詩語固忌用巧太過，然緣情體物，自有天然工巧，而不見其刻削之痕。老杜‘細雨魚兒出，微風燕子斜’，……至若‘穿花蛺蝶深深見，點水蜻蜓款款飛’，……皆無以見其精微如此。然讀之渾然，全似未嘗用力。

44) 같은 책, 122쪽. 《呂氏童蒙訓》曰：“謝無逸語汪信民云：老杜有自然不做底語到極至處者，有雕琢語到極至處者。”

45) 같은 책, 132쪽. 《螢雪叢說》：“老杜詩詞，……然其所以大過人者無它，只是平易，雖曰似俗，其實眼前事爾。”

46) 같은 책, 133쪽. 數物以箇，謂食爲喫，甚近鄙俗，獨杜屢用。……蓋篇中大概奇特，可以映帶者也。

47) 같은 책, 150쪽. ‘不肯’二字含蓄，甚佳。

로 날아 올라가네.)”을 예로 들었다.⁴⁸⁾

王得臣은 《塵史》에서 杜甫의 詩가 詩句의 語順을 倒置시키는 표현의 운용에 뛰어남을 말하였는데 ‘杜甫는 故事와 日常語를 잘 사용하였으며 구절을 도치시켜 사용한 것이 많은데, 대체로 이와 같이 하면 詩語가 준엄하고 문체가 굳세다.’⁴⁹⁾고 평하면서 “露從今夜白, 月是故鄉明.(이슬은 오늘 밤부터 하얗고, 달은 고향의 달처럼 밝구나.)”을 예로 들었다. 《古今詩話》 또한 杜甫의 “紅飯啄餘鸚鵡粒, 碧梧棲老鳳凰枝.(붉은 밥알은 앵무새가 쪼아 먹다 남은 것, 푸른 오동나무 가지는 봉황새가 깃들어 늙도록 산 곳.)”를 예로 들면서 말이 일상적인 언어의 순서에 어긋나지만 뜻이 기이하다고 높이 평가했다.⁵⁰⁾

葛立方은 《韻語陽秋》에서 杜甫 詩의 句法의 특색의 하나로, 杜甫의 詩는 뒷 두 구절로써 앞 두 구절을 이은 것이 매우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⁵¹⁾ “啼鳥爭引子, 鳴鶴不歸林. 下食遭泥去, 高飛恨久陰.(지저귀는 까마귀는 다투어 새끼를 이끌고 가고, 울어대는 학은 숲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내려와 먹이 쪼려다 진흙 만나 떠나가고, 높이 날며 오래 흐린 날씨 한탄한다.”(《晴》)를 예로 들었는데, 第1句와 第3句가 서로 관련이 있고 第2句와 第4句가 서로 관련이 있다.

(4) 章法

黃庭堅은 일찍이 ‘문장은 반드시 배치를 신중히 해야 한다.(文章必謹布置)’고 주장하였는데 范溫은 이 말을 인용한 다음, 杜甫의 《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詩를 평하여 “이 詩의 구성은 正體를 가장 잘 얻었는데, 官衙의 건물은 廳堂과 房室이 각기 정해진 곳이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과

48) 같은 책, 111쪽. 詩中有拙句, 不失爲奇作. 若子美云“兩個黃鸝鳴翠柳, 一行白鷺上青天.”之句是也.

49) 같은 책, 141쪽. 子美善用故事及常語, 多倒其句而用之, 蓋如此則語峻而體健.”

50) 같은 책, 172쪽. 老杜“紅飯啄餘鸚鵡粒, 碧梧棲老鳳凰枝.”此語反而意奇.

51) 같은 책, 146쪽. 子美詩以後二句續前二句處甚多.

같다.”⁵²⁾고 말했다. 范溫은 또 杜甫의 〈十二月一日〉詩와 〈聞官軍收河北〉詩를 평하면서 “이 시들은 모두 한 때의 뜻을 曲盡하게 나타내며 여러 사람들의 감정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였는데, 流暢하고 條理가 있어 마치 辯士의 말과 같으니, 이른바 뜻이 마치 구슬을 꿰어놓은 듯 하다는 것이다.”⁵³⁾라고 하여 ‘意若貫珠’의 章法 특색을 지적하였다.

馬永卿은 詩의 題目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古人은 詩를 절대로 대강대강 짓지 아니하였으며, 제목을 부치는 것도 각각 깊은 뜻이 있었다.”⁵⁴⁾라고 말하면서 杜甫의 〈獨酌〉, 〈徐步〉 등을 예로 들었다.

(5) 對偶

宋代의 사람들은 杜甫가 詩에서 對偶를 맞출 때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임하였으며, 비교적 특수한 對偶 형식들을 응용한 점에 주목하였다.

王觀國은 《學林新編》에서 어떤 사람이 杜甫의 〈田舍〉詩의 “欂櫨枝枝弱, 枇杷樹樹香.(欂櫨는 가지마다 가냘프고 비파는 나무마다 향기롭다.)”에 대해 ‘欂櫨’는 雙聲字가 아니고 ‘枇杷’는 雙聲字이니 對偶가 정교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 詩는 杜甫가 농가에 있을 때 우연히 이 두 사물을 보고 詩에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면서, 杜甫가 對偶의 짝을 맞추는 것의 偏正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縱橫으로 넘나들며 자유롭게 對偶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⁵⁾

胡仔는 律詩에서 제1구와 제3구가 짝이 되고, 제2구와 제4구가 짝이 되는 것을 ‘扇對格’이라 일컬으면서⁵⁶⁾ 杜甫의 “得罪台州去, 時危棄碩儒. 移官蓬閣後, 穀貴歿潛夫.(죄를 짓고 태주로 가니, 시국이 위태로운데 큰 선

52) 같은 책, 103쪽. 此詩布置最得正體, 如官府甲第, 廳堂房室, 各有定處, 不可亂也.

53) 같은 책, 108쪽. 此蓋曲盡一時之意, 愜當衆人之情, 通暢而有條理, 如辯士之語言也, 所謂意若貫珠也.

54) 같은 책, 152쪽. 古人吟詩絕不草草, 至於命題, 各有深意.

55) 같은 책, 109쪽. 子美豈不知對屬之偏正邪? 蓋其縱橫出入無不合也.

56) 같은 책, 112쪽. 律詩有扇對格, 第一與第三句對, 第二與第四句對.

비 버렸네. 관직을 비서성으로 옮긴 뒤, 곡식 값 비싸 숨어 지내는 사람을 굶어 죽게 만들었네.”(〈哭台州鄭司戶蘇少監〉)를 例로 들었다. ‘扇對格’은 ‘隔句對’라고도 부른다.

葛立方은 《韻語陽秋》에서 열 글자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十字格’을 설명하면서⁵⁷⁾ 杜甫의 “直愁騎馬滑, 故作泛舟回.(다만 말을 타면 미끄러울까 걱정되기에, 배를 띄워 돌아가네.)”(〈放船〉) 등을 例로 들었다. ‘十字格’은 ‘流水對’라고도 부른다.

葛立方은 또 當時 詩를 논하는 사람들이 對偶가 잘 맞지 않으면 거친 흠이 있다고 하고, 지나치게 잘 맞으면 俗된 흠이 있다고 말하는데, 江西 詩派 詩人들은 俗된 흠을 우려하여 왕왕 그다지 對偶를 이루지 않는데 이 또한 하나의 치우친 견해일 따름이라고 비판하면서, 杜甫를 例로 들면서 배울 것을 권유하였다. 杜甫의 詩 중 어떤 것은 ‘對偶가 너무나 딱 들어맞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찌 또 俗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詩는 ‘비록 對偶를 그다지 맞추려 하지 않았지만 격률에 어긋나지 않으니, 詩를 배우는 사람들은 응당 이러한 것을 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⁸⁾

(6) 平仄, 用韻

杜甫는 律詩 창작에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 胡仔는 杜甫의 律詩의 變體를 높이 평가하였다. 《苕溪漁隱叢話》에서 말하길, 律詩를 지을 때 平聲과 仄聲의 글자를 사용하는 것은 세상에 진실로 정해진 법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이를 지키지만, 때때로 變體를 사용해서 奇兵을 출동시키는 것과 같이 변화를 무궁하게 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을 놀라게 해주는 것만 못하다고 보면서, 杜甫의 〈嚴公仲夏枉駕草堂兼携酒饌〉 등 律詩의 變體를 들면서 詩를 배우는 자들은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⁵⁹⁾

57) 같은 책, 147쪽. 五言律詩於對聯中十字作一意, 詩家謂之十字格.

58) 같은 책, 151쪽. 如此之類, 可謂對偶太切矣, 又何俗乎? ……雖對不求太切, 而未嘗失格律也, 學詩者當審此.

59) 같은 책, 124쪽. 律詩之作, 用字平側, 世固有定體, 衆共守之. 然不若時用變體,

嚴有翼은 또 《藝苑雌黃》에서 韻字의 運用에 대해 말하길, 《文選》의 古詩, 杜甫, 韓愈 등은 중복해서 韻字를 단 것이 매우 많은데 이것은 詩想이 떠오르면 그에 따라 곧 押韻을 한 것으로 古詩의 韻字 사용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⁶⁰⁾

(7) 用典

黃庭堅은 杜甫와 韓愈가 풍부한 학식과 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하여 각기 典故의 운용에 뛰어남을 지적하면서, 杜甫의 詩와 韓愈의 글은 한 글자도 來歷이 없는 것이 없는데 후세의 사람들은 책을 읽은 것이 적기 때문에 杜甫와 韓愈가 스스로 이런 말을 지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⁶¹⁾ 王得臣은 또 典故의 運用 측면에서 말하길, 옛날의 詩를 잘 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사용하는 데에 뛰어나 완전히 자기 뜻에서 나온 듯 하였는데 자신은 이런 것을 李白과 杜甫에서 보았다고 높이 평했으며,⁶²⁾ 葛立方은 杜甫가 특히 《文選》의 말을 잘 사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⁶³⁾

(8) 表現 特色

宋代의 사람들은 杜甫 詩의 표현 특색에 대해 각자 나름대로 분석했다. 葉夢得은 《石林詩話》에서 禪宗의 雲門宗에 세 종류의 말이 있는데 杜甫의 詩에도 또한 이러한 세 종류의 말이 있다고 말하면서 杜甫 詩가 다양한 風貌와 境界를 가지고 있는 특색을 지적하였다.⁶⁴⁾

高元之는 《茶甘錄》에서 杜甫의 詩는 小인이 盛하여 君子를 억압함을 興의 수법으로 표현하여 《詩經》 전통을 계승하였다고 높이 평했다.⁶⁵⁾

如兵之出奇, 變化無窮, 以驚世駭目. ……凡此皆律詩之變體, 學者不可不知也.

60) 같은 책, 147쪽. 意到即押韻. ……此則古詩用韻不拘.

61) 같은 책, 111쪽. 子美作詩, 退之作文, 無一字無來處, 蓋後人讀書少, 故謂杜韓自作此語耳.

62) 같은 책, 143쪽. 古之善賦詩者, 工於用人語, 渾然若出於己意. 予於李杜見之.

63) 같은 책, 154쪽. 子美詩善用《文選》語.

64) 같은 책, 110쪽. 禪宗謂雲門有三種語 ……老杜詩亦有此三種語.

崔駰 또한 杜甫의 〈八哀詩〉는 〈雅〉와 〈頌〉에 比肩된다고 평했다. 그는 또 〈發秦州〉를 비롯한 24수의 紀行詩에 대해 筆力の 變化가 司馬遷의 《史記》의 贊과 우열을 다룰 만하다고 평한 韓駒의 말을 인용했다.⁶⁵⁾

范溫은 《潛溪詩眼》에서 杜甫의 詩는 景物 描寫와 화려한 수식, 性情·詩意的 조화로운 표현에서 뛰어나다고 극찬했다.⁶⁷⁾

師古는 杜甫의 〈古柏行〉의 “霜皮溜雨四十圍，黛色參天二千尺。(서리빛 흰 껍질은 비에 젖어 둘레가 사십 아름되고, 검푸른 줄기는 하늘에 닿을 듯 이천 자 솟았네.)” 詩句를 例로 들면서 ‘四十圍’와 ‘二千尺’과 관련하여 字句를 끝이곧대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⁶⁸⁾ 표현수법의 측면에서 誇張法을 운용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黃庭堅은 杜甫의 夔州 도착 이후의 詩를 평하여, 번거롭게 먹줄을 치고 깎아 다듬지 않아도 저절로 법도에 부합한다고 높이 평했다.⁶⁹⁾ 陳善 또한 《捫虱新話》에서 ‘杜甫의 夔州 이후의 詩를 보면 간결하고 평이하며 純熟하여 고치거나 손질한 흔적이 없으며 彈丸이 구르는 것 같다’고 평했다.⁷⁰⁾

(9) 風格

胡仔는 杜甫의 〈戲作花卿歌〉詩를 ‘含蓄’이란 말로 평했으며,⁷¹⁾ 蘇軾은

65) 같은 책, 153쪽. 今之作詩，以興近乎誦也，故不敢作，而詩之一義廢矣。老杜〈高菑〉詩云：“兩句不甲拆，空惜埋泥滓。野覓迷汝來，宗生實於此。”皆興小人盛而掩抑君子也。

66) 같은 책, 117쪽. 少陵〈八哀詩〉，可以表裏雅頌，中古作者莫及也。兩紀行詩，〈發秦州〉至〈鳳凰台〉，〈發同谷縣〉至〈成都府〉二十四首，皆以經行為先後，無復差舛。昔韓子蒼嘗論此詩筆力變化，當與太史公諸贊方駕，學者宜常諷誦之。

67) 같은 책, 115쪽. 子美云：……亦極綺麗，其模寫景物，意自親切，所以妙絕古今。……皆出於風花，然窮盡性理，移奪造化。

68) 같은 책, 125쪽. 大抵詩人之言，不必於長短小大而求其疵也。詩取其意，不必泥其語。

69) 같은 책, 119쪽. 觀子美到夔州後詩，……皆不煩繩削而自合矣。

70) 같은 책, 133쪽. 觀子美到夔州以後詩，簡易純熟，無斧鑿痕，信是如彈丸矣。

71) 같은 책, 121쪽. 但云“人道我卿絕世無，既稱絕世無，天子何不喚取守東都。”語句含蓄。

雄偉하고 壯麗한 七言詩로 杜甫 詩 “旌旗日暖龍蛇動, 宮殿風微燕雀高.(깃발은 햇볕 따듯한데 용과 뱀이 움직이고, 궁전은 바람 잔잔한데 제비와 참새가 높이 난다.)”와 “五更鼓角聲悲壯, 三峽星河影動搖.(오경에 북과 호각 소리 비장하고, 삼협에 별과 은하수 그림자 흔들거린다.)”를 들었다.⁷²⁾ 蘇轍은 杜甫의 〈哀江頭〉가 文氣가 아주 뛰어나 마치 언덕을 내달리고 개울을 뛰어넘기를 평지 달리 듯이 하는 戰馬와 같다고 비유하였으며⁷³⁾, 蔡夢弼은 말하길 杜甫의 詩는 말이 典雅하다고 평했다.⁷⁴⁾

宋代 사람들은 또 杜甫 詩의 다양한 風格을 주목하였는데 陳正敏은 杜甫 詩의 風格으로 平淡簡易, 綿麗精確, 嚴重威武, 奮迅馳驟, 淡泊閒靜, 風流醞藉 등을 거론하였다.⁷⁵⁾

4. 其他

《杜工部草堂詩話》에는 이상의 내용 외에도 여러 이야기가 실려 있으며 그중에서도 杜甫나 杜甫 詩 관련 考證이 눈길을 끈다. 蔡夢弼은 宋代 사람들의 杜甫나 杜甫 詩 論評을 단순히 輯錄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때로는 考證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우선, 《杜工部草堂詩話》에는 杜甫의 詩인지 아닌지 작품의 眞僞를 논한 사례도 보이는데, 《古今詞話》가 蜀人의 〈將進酒〉를 杜甫의 詩라고 여긴 데에 대해, 蔡夢弼은 杜甫의 作品집 안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니 그의 作品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말했다.⁷⁶⁾ 蔡夢弼은 또 胡仔가 《苕溪漁隱叢話》에서 〈江南逢

72) 같은 책, 115쪽. 七言之偉麗者, 如子美云“旌旗日暖龍蛇動, 宮殿風微燕雀高.” “五更鼓角聲悲壯, 三峽星河影動搖.”

73) 같은 책, 126쪽. 予愛其詞氣如百金戰馬, 注坡騫濶, 如履平地.

74) 같은 책, 164쪽. 夢弼謂, 誦杜詩能除瘴, 烏有是理? 蓋言其詩辭典雅.

75) 같은 책, 106-107쪽. 杜子美之詩, ……故其詩有平淡簡易者, 有綿麗精確者, 有嚴重威武若三軍之帥者, 有奮迅馳驟若泛駕之馬者, 有淡泊閒靜若山谷隱士者, 有風流醞藉若貴介公子者.

76) 같은 책, 136쪽. 首先有曾從漢梁王之句, 決非子美作也. 況集中不載, 灼可見矣.

李龜年>이 杜甫의 詩가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해 다시 고증해야 됨을 지적하였다.⁷⁷⁾ 蔡夢弼은 또 杜甫의 死地와 관련하여 세상에서는 杜甫가 耒陽에서 죽었다고 말하지만, 杜甫의 죽음은 지리적으로는 潭州와 岳陽의 사이에서 일어났고, 시간적으로는 가을과 겨울 무렵이었다고 본다는 王得臣의 견해를 거론했다.⁷⁸⁾ 현재 전하는 《杜工部草堂詩話》의 가장 마지막 조항은 杜氏 家系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서 蔡夢弼은 杜氏가 모두 다섯 派가 있는데 杜甫 一派는 다섯 派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점을 주목하고, 杜甫와 杜佑가 똑같이 杜預에게서 나왔는데 어찌하여 族譜에 수록되지 아니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했다.⁷⁹⁾

IV. 나가는 말

李白과 더불어 중국의 古典詩歌를 대표하는 詩人인 杜甫와 그의 詩에 대한 談論은 宋代에 이르러 空前의 성황을 이루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宋代의 사람들은 杜甫 詩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杜甫 詩를 최고로 推仰하면서 杜甫 詩를 여러 면에서 평가하고 특색을 따졌다. 蔡夢弼은 宋代에 새로이 등장한 ‘詩話’의 형식을 빌려 많은 사람들의 杜甫나 杜詩 관련 각종 논평 자료를 輯錄하여 《杜工部草堂詩話》를 완성하였다. 宋代에 詩人 한 사람에게 관련된 담론을 한 권의 詩話로 輯錄하여 편찬한 것은 杜甫가 唯一하며 그 이후에도 흔치 않다.

《杜工部草堂詩話》에 실려 있는 宋代 사람들의 杜甫 詩 관련 논평들을 살펴보면, 우선 杜甫 詩에 관한 全般的이고 總體的인 담론으로, 杜甫 詩의 특색에 대해 ‘集大成’, ‘詩史’, 그리고 ‘六經과 같은 존재’를 거론했고, 杜

77) 같은 책, 126쪽. 子美〈江南逢李龜年〉詩云……此詩非子美作. 夢弼謂當考.

78) 같은 책, 143쪽. 要之, 卒當在潭岳之間, 秋冬之際.

79) 같은 책, 173쪽. 杜氏凡五房: 一京兆杜氏, 二杜陵杜氏, 三襄陽杜氏, 四涇水杜氏, 五濮陽杜氏. 而甫一派, 又不在五派之中. 甫與佑既同出於預, 而家譜不載, 何也?

甫의 詩와 散文에 대한 평가, 李白과 杜甫의 優劣論, 陶淵明과 杜甫의 비교, 후세의 推仰 등에 대해 논평을 하였다. 이어서 杜甫 詩의 내용에 대해서 君王과 百姓 걱정, 時事, 杜甫의 생활과 감정 등에 대해 논평을 하고, 詩의 字句 풀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또 杜甫 詩의 藝術的 成就에 대해서는 詩學淵源을 비롯하여 用字, 句法, 章法, 對偶, 平仄, 用韻, 用典, 表現 特色 및 風格 등, 다방면에 걸쳐서 논하였다. 그리고 杜甫와 그의 詩에 대해 考證 작업도 행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宋代에는 이전의 唐代보다 그 논의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세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宋代는 杜詩學의 전개에 있어서 興盛期에 속한다고 평할 수 있으며, 蔡夢弼의 《杜工部草堂詩話》는 宋代의 대표적인 杜詩學 저작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杜工部草堂詩話》를 통하여 杜甫나 杜甫 詩에 대한 그 당시 43인의 宋代 사람들의 견해를 접하고 살필 수 있다. 그리고 宋代의 다양한 견해들을 輯錄해 놓은 이 책은 우리가 金代를 비롯하여 以後 元代, 明代, 清代, 그리고 現代의 杜詩學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는 데에도 참고 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송용준·오태석·이치수, 《宋詩史》, 역락, 2004.
 李義康, 《세종조 간행본 杜工部草堂詩話》, 다운샘, 2003.
 이치수, 〈葉夢得 《石林詩話》의 詩論〉, 《中國語文學》 第69輯, 2015.
 이치수, 〈張戒 《歲寒堂詩話》의 唐宋 詩人論〉, 《中國語文學》 第78輯, 2018.
 陳尚君·王欣悅, 〈蔡夢弼《杜工部草堂詩箋》版本流傳考〉, 《古籍整理研究學刊》 5期, 2011.
 仇兆鰲, 《杜詩詳註》, 文史哲出版社, 1976.

- 吳文治, 《宋詩話全編》, 鳳凰出版社, 2006.
吳中勝, 《杜甫批評史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許總, 《杜詩學發微》, 南京出版社, 1989.
張忠綱, 《杜甫詩話六種校注》, 齊魯書社, 2004.

< Abstract >

In the comments on Du Fu and his poetry in the Song Dynasty, which are listed in the Cai Mengbi's «Du Gongbu Caotang Poetry Talks», as a general overview of Du Fu poetry, it was defined its characteristic as 'epitomization', 'poetry of historical significance', and 'being like Six Merdians'. There were comments about the poem and prose of Du Fu, Li Bai and Du Fu, Tao Yuanming and Du fu, and the reverence of posterity. Next to that, there was a comment on the main contents of Du Fu poetry about the worries of the king and the people, the current events, the Du Fu's life and emotions, and expressed opinions about the wording of the poem. In addition, as for Du Fu's artistic achievement, the discussion was about the origin of poetics, characters used, sentence structure, art of composition, antithesis, tonal pattern, rhyme use, allusion, expression, feature and style. And the textual research was done about Du fu and his poem.

Key Words : 杜甫(Du Fu), 蔡夢弼(Cai Mengbi), 杜工部草堂詩話(Du Gongbu Caotang Poetry Talks), 宋代(Song Dynasty), 杜詩學(The Study of Du Fu's Poetry)